

한라시론



문영인 서제주키위연구회

키위를 제2과수로

100세 시대에 진입한 현재 키위는 비타민, 식이섬유, 펙틴 등의 기능성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점차 사랑을 받기 시작해 국내 키위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맛있는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며, 그린키위의 구매 가구 비율은 줄지만, 골드키위, 레드키위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키위 생산량은 2만t 내외이며 연간 소비량은 5만t 정도이고, 소비량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참다래는 국산과일이고, 키위는 수입과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국내산 키위 초기에는 이름을 '참다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키위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산은 '키위' 국내산은 '참다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키위는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해 크기가 크고 맛있다. 제주산 키위는 1000㎡ 당 생산량도 육지부의 노지재배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타 지역에 비해 시설비 투자는 많은 편이지만 소득 또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외국 업체의 경우 수입품종의 고 품질 브랜드 홍보와 가격인하 전략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육성 품종 키위 생산능력은 맛있는 과일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평준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개별 농가들을 조직화해 과일 생산량을 매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며, 개별판매보다는 출하 장구를 일원화해 가격 협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키위를 제2과수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수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 연구인력 확보, 전문 기술인력 육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국내에서 육성한 23개 신품종이 있다고 하지만 외국 업체에서 도입한 품종과 같이 오랫동안 재배 할 수 있는 우수한 품종 육성이 필요하다.

사설

방역도 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큰일이다

제주지역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경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따르면 2020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전월 대비 10.4p 떨어진 63.1을 기록했습니다.

을 찍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영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경기체감지수가 소상공인 87.0, 전통시장 107.4로 크게 회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제주경제는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편집국 25시

코로나19가 바꾼 풍경



부미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내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인구가 줄기는 했어도 동네가 '블랙아웃' 된 듯 불빛이 사라지고 인적이 뜸해진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 꺼진 가게가 시사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시련이 현실화했음을 보여준다.

그간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분류되던 제주도는 최근 확산 추세가 심상찮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in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전면 백지화”

제주녹색당 논평 통해 촉구

○...제주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47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제2공항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 요구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어코 제2공항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민안전 운운하며 마치 도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만적인 수사 이면에 도민의 의견수렴조차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대응 워킹그룹’ 출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농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달 28일 월동 무를 시작으로 주요 작목인 마늘·감귤산업 워킹그룹을 꾸려 토론

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워킹그룹을 통해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한편으로 신 성장동력 개발 등 코로나19 이후 농업시장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농업 '리마인드 웨딩'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리마인드 웨딩'을 진행키로 해 눈길이다.

한국비티고등학교(교장 홍남호)는 ‘재능기부 리마인드 웨딩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일 발표했다.

뷰티고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도민 2팀을 선정, 학생들이 사전관리 및 리마인드 웨딩 촬영, 웨딩 앨범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이메일(daun6055@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국토부, 제2공항 의견수렴 '진정성' 보여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의견 수렴 '진정성'에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제2공항 해법으로 제주도 차원의 도민 의견 수렴·반영,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검증 등을 언급해 진행된 자제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검증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여태껏 미루는 가운데 내년 제2공항 예산을 삭제했다가 증액 편성하는 행보로 의견수렴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국토부가 1일 밝힌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상 제주 제2공항 건설예산은 총 473억원입니다. 정부 2020년도 예산안은 제2공항 건설 관련 356억2000만원만 반영했다가 지난 5월 2차 추경시 320억원 삭감, 36억여원만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초 반영하려던 제2공항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걸 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항 반대’ 측은 국토부의 도민 의견 수렴 후 예산 반영·집행 언급에다 의회 갈등 해소 특위의 의견수렴 절차단계를 무시한 점을 들어 반발합니다.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 검증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없이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는 현실도 의견수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달 도의회 2공항갈등해소특위에 제안한 후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미루는 도의회가 공식 요청할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걸으면 갈등해소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목인으로 치산한다는 비난여론을 알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반영, 현 공항 활용 검증 등의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가도 한편으로 2공항 강행 수순을 밟는 식의 ‘이중적 자제’로는 현 상황 해결이 요원합니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1. 당 회사는 2020년 8월 14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을 200,000,000원에서 80,000,000원으로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120,000,000원으로 한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국제보청기프라자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732-5552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